그리스 구제금융 미집행금 지원 합의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로존, IMF, 그리고 유럽중앙은행(ECB)(이하 '트로이카'라 함)은 11월 27일 제 3차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금 437억 유로를 지급하는 데 합의함.

- 트로이카는 그동안 그리스의 부채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구제금융 집행을 연기해 왔으나, 그리스 경제개혁과 재정긴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제금융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힘.
- 2012년 6월로 예정되었던 구제금융 제3차분 지급이 수개월간 지연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려 온 그리스는 이번 결정으로 단기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됨.

■ 또한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현재의 거래 가격으로 국채를 환매하여 부채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함.

- 그리스는 저금리 구제금융 자금을 이용하여 민간투자자 보유 그리스 국채를 거래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능해 짐.
- 독일은 그리스의 국채 환매가 그리스의 경제회복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이 방안을 지지함.

■ 이번 합의는 유로존 국가 은행들이 그리스 국채 보유에서 발생한 수익 70억 유로를 포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.

- ECB와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 국채 가격이 폭락할 때 이를 매입하여 수익을 발생시킨바 있음.
- 트로이카는 은행들이 이러한 수익을 포기할 경우 그리스가 GDP의 4.6% 규모의 부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.

■ 이밖에 그리스에 지원되는 구제금융 금리는 4%에서 1%로 인하되며, 구제금융 관련 보증 비용 역시 줄어들고, 보증 비용을 완납해야 하는 기한도 15년 더 연장됨.

- 이 방안은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단의 원금을 삭감하는 헤어컷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짐.

■ 결국 트로이카는 그리스 GDP의 20%(400억 유로)에 해당하는 부채를 감축시키는 동시에 2020년 GDP 대비 부채수준 목표치를 124%로 완화함.

- 당초 트로이카는 2012년 3월 그리스에 제2차 구제금융 지원을 합의할 당시 2020년까지 부채 수준을 GDP 대비 120%로 설정하였음.
- 그러나 잇단 고강도 긴축으로 그리스의 GDP 대비 부채수준이 144%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트로이카는 부채 일부를 감축해주는 동시에 GDP 대비 부채수준을 완화시키기로 결정함.

■ 그러나 전문가들은 합의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어 여전히 그리스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함.

- Financial Times는 그리스의 Buy-back[1] 프로그램을 포함한 몇 가지 요소들이 완결되지 않아 성공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고 분석함.
  - 그리스가 환매해야 할 단기 국채 규모와 트로이카가 국채를 환매할 때 적용할 금리, 국채 입찰 방식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음.
- 또한 그리스 부채 감축을 둘러싼 IMF와 유로존의 의견 대립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음.
  - IMF는 2020년 부채수준을 처음보다는 다소 완화한 대신 2022년 목표치를 GDP 대비 110%로 설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로존이 그리스 부채 일부를 떠안을 것을 요구함.
  - 그러나 독일, 네덜란드 등 재정적으로 안정된 국가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.

(Financial Times, 11/27)

1) 갚아야 할 채무 원금을 할인해준 뒤 되사는 것.